범사에 일어나는 대반전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범사에 일어나는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사도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하여 간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의 간구와 가이오가 자기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이 꼭 일치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라는 것이 도대체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매장의 길로 함께 가고, 부활의 길로 함께 갔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앉히운 바 된 사람이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잘됐다는 말은 '좋은 길로 인도되다, 기쁜 길로 인도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유'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말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이유'가 좋다는 말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된다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수동태형의 동사로서 '좋은 길로 인도되어졌다'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유안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유'가 '기쁜'이라는 뜻이고 좋다는 말이고 '안겔리온'이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유 호도스, 좋은 길로…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된 자가 영혼이 잘된 자인데, 그럼 그 영혼이 잘된 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 안에서 대처하고 있느냐, 오늘 이걸 살펴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장사를 하면 장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부부간의 일,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일, 형제간에 일어나는 일, 이웃과의 일어나는 일 등, 이 땅에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영혼이 잘된 자의 입장이 어떻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먼저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영혼이 잘된 자가 처해있는 situation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가를…
이 상황은 천국과, 공중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땅, 세 개의 차원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공중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프쉬케'라고 말하죠. 영혼이 잘되었다고 말할 때도 이 '프쉬케'가 좋은 길로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프쉬케'가 싸이콜로지,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싸이코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혼'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프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세계가 있어요. 헬라어로 '싸륵스'라고 말합니다.
'싸륵스', '프쉬케', '프뉴마' 이 세 층이 한 사람에게 겹쳐있는 거예요.
육의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있고, 공중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차원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몸에 묶여있던 자가-공중에 있던 마음이 몸으로 내려와서 몸에 묶여있던 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몸의 세계에 대해서 인연을 끊고, 죽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인도된 것이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날 범사에 대한 입장이 함께 동시에 취해진 거예요.

영혼이 잘돼서 공중에 있던 영혼이 몸에 묶여 있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하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이미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있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 땅으로 내려와 몸에 묶일 것이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육체로 내려와 묶인 것이 죄악의 현실이었으니까 언제나 양자택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끼어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으면서 몸의 세계를 지향할 것이냐, 전국을 지향할 것이냐, 이걸 지향하면 한쪽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님이 우편에 계신 그곳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땅의 범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에요.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에 있는 나의 인격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범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깜깜하고 나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을까?
등 돌린다는 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번에 미야기 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발원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야기 현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발현돼 가지고 미치는 영향권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감싸듯이 타원형 비슷하게 길게 놓여 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중심으로 서쪽 편으로 한국이 있고 일본의 동쪽으로는 태평양과 나아가 아메리카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래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있습니다.
대한해협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등을 돌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일본의 서쪽에 한국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의 동쪽 미야기 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쓰나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태평양 바다 전체를 다 커버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해안과 남아메리카 대륙 페루가 있는 거기까지 미치고,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다 쓰나미의 파장이 미치는 겁니다. 물론 약해지지만…

그런데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있는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바람에 그 컴퓨터 그래픽에 나온 쓰나미의 파장이 머리털 끝만큼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쪽으로 미쳐 가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한국에는 조금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의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 의지의 에너지가 등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단 하나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는데, 그 등을 돌리게 된 범사에 대해서는 영혼의 잘됨이 유지되고 있는 한,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에 이끌려진 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니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땅에 대해서는 지, 정, 의 그 어느 측면의 에너지도 눈곱만큼도 향해서 가게 되지를 않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극적인 에너지는 다 어디에 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분인데 용어를 달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아버지에 대해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끄집어 데리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덕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에 참여해야 된다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영부인이 계시죠, 다음에 자녀분들이 있고, 부모형제도 계십니다. 그 다음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장관들, 차관, 부장, … 동사무소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부인께서 아는 것과 비서실장이 아는 것과 장관이 아는 것과 동사무소 직원이 아는 것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는 것, 초등학생이 아는 것이 천차만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 영부인의 수준에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의 수준에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생각을 말라는 사도바울의 말은 게을러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바빠 죽겠어요. 뭐가 왜 바쁘지요?
초등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수준에서 영부인이 아는 수준까지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시고 창조주로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앎에 도달하도록 초청을 받은 자들이고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그 단계까지 가기가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범사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 이게 벌써 영혼이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길이에요, 길.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십자가에서 연합하면서부터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가는 겁니다.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당연하지요. 위로 이끌림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를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지금 나가서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대학입시 준비해야 되고, 취직시험 준비해야 되고, 결혼해야 될 나이니까 선도 봐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도대체 이 땅에서 범사가 내가 관계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생각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최선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 세상, 그리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 속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바울의 영적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에 정말 백수 천수를 내다보는 천재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 마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형통이라는 말이 잘된다 라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잘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을 때 가능한 단어입니다. 내 마음속에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의 의도와 뜻과 생각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린 형통한다고 합니다. 불통이 뭐지요?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불통하는 것이고 막히는 것이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없으면 형통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없어요. 형통을 원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마음속에 의도나 바라는 바가 없고 생각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막힌 일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없을 때는 형통도 불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간구가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실제로 영혼이 잘된 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일에 대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보면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왜냐하면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생각이 없거든요. 영혼이 잘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생각이 온통 힘과 모든 에너지가 다 하늘 쪽으로 향해서 주님이 아버지를 알고계시는 그 앎에 도착하는 데에 주력하는 자가 영혼이 잘된 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망라해서 이 피조의 세계를 통틀어 자체 내에 생각이 없는 모든 것들에게 임하는 공통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체 내에 생각이 없는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에 임하는 공통된 것이 있어요. 어느 것도 예외 없이 자체 내에 생각이 없는 한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체 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모든 이 우주 안의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은 현실로 나타나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것들에 대해 당신의 생각으로 임하셔서 그 생각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시는 형통하심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형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인간,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

서 이것이 좋은 일이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것이다, 몸이 건강한 게 좋은 것이다, 이런 호불호의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현실에 나타내기 위해서 추구해 들어갑니다.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도 그 영역에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 내가 생각이 있는 한 이 땅의 범사에 대해서 내 생각이 살아있는 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완전히 딴 영역의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인도되어지는 바람에 내 마음의 모든 힘이 생각이 다 위의 것을 찾는데,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갖고 계신 그 믿음에 도달하고 그 앎에 도달하고 그 사랑에 도달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오직 온 마음이 거기에 다 가있는 바람에 내 땅에서 이 몸으로 이루어지는 범사에 대해서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식을 봐도 뭐가 잘되겠다, 못 되겠다 할 겨를이 없이 마음은 온통 하나님께 다 가있고 사업장에 가도 마음이 다 가있습니다. 사업장에 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에 대해 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 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없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는 한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꼭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운명에서 일어나는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나무를 보시고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시고 산을 보시고 들을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세상 어느 부분이든 자체 내에 생각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범사에 생각이 없어요. 게을러서도 아니고 지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잘 인도되어서 하늘에 도착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갖고 계신 모든 마음의 상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오직 소원이 아버지하나님과 주님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것뿐이라서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아들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끼고 싶어서…
날마다 마음이 그 쪽으로 바쁜 바람에 이 땅에 생각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 이 하나님의 형통을 사도요한은 간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이란 말을 왜 힘주어서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해 나가시는 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의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입으로 꺼내지도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보좌가 계신 하나님아버지께로 인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교회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목사님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느냐하면 교회숫자가 부흥하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이 땅 범사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에게는 사업이 번창해서 돈이 잘 벌리게 될 것이라고 만사형통, 범사형통을 그 쪽으로 인도해 버립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일어나는 범사에 형통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이쪽 범사에 형통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끌어당겨 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되는 것에 돈이 많이 벌리는 것에 이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에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에 다 이쪽으로 끌어버립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수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느냐에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마음은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하나님에 대해 갖고 계신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음이 이 땅에서 한번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매달리게 되요.
더 지독하게 매달리는 증거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에 위기가 처했을 때는 고민고민하다가 힘들어서 지쳐 떨어져 잠자고 맙니다. 소화가 안돼서 끅끅 하고 말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에 사십일 금식기도 100일 하루 한 끼 약정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 범사에 대해 더 강한 집착력을 갖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죄 사함이 이제는 뭐든지 구해도 되는 걸로 칭의를, 의롭다고 인쳐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지독하게 매달려요. 더 지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광야 사막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있던 사람에게로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소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하기가 좋아서 가서 친구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 그 안에 거하게 됨으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였지요?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이 육체의 현실에 온 마음이 집중되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 세상에 육체에 묶여있는 상태를 해방시켜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금 마음을 어디에 경주하는가 하면,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육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부자 되고, 오래 살고, 형통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던, 믿기 전에는 생각도 안 해보았던 40일 기도 백일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이 세상에 대한 일곱 배 강한 집착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배 강한 집작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취직해서 사회생활 하다가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뜻한 바가 있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영혼은 상관없어요.
전도하라고 말해도 선교하라고 말해도 복음을 전해도 전부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일까에 마음이 다 가있다고 한다면, 이건 믿기 전보다 이 세상에 더욱 더 일곱 배 강한 힘으로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따라간다, 육체를 따라간다,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간다…
‘싸륵스’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 공중에 있는 마음이 묶여서…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더 해요 더 해…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힘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나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되요.
자, 영혼이 잘된 자의 이 세상의 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범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되요. 단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임하여 어떻게 그 생각이 형통하게 되는가,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 몸의 현실의 문제에는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의 현실에 대해서 오직 주력을 다 해서 우리 마음은 온통 다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간구하고 추구해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수동성은 어떨 때 지켜지는가?
능동적으로 하늘을 향해 찾는 힘이 같이 있을 때라야만 이 세상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끼어들게 돼 있어요. 더 강한 힘으로 끼어들게 돼 있어요.
한 마디로 마음이 하늘로 만족하지 않게 되는 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강한 집착력으로 일곱 배 강한 집착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을 하늘로 채우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자,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습니다. 입사동기들이 다 승진하고 내가 제일 뒤떨어졌어요. 승진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돋아나지 않겠어요? 마음에 desire 가 생겨요.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하는 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욕구하느냐가 문제이지…
그래서 승진의 욕구가 생길 때, 영혼이 잘된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진을 향해 가려는 마음을 차단시킵니다. 승진에 대한 문제에서 죽어요. 동료들이 우습게 여기는 모든 굴욕적인 상황을 다 인지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이 안돼서 겪게 되는 모든 욕구불만 그 마음의 에너지가 위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진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간을 하늘에서 하나님을 더 앎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더 많이 느낌으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 깊이와 넓이에 조금이라도 더 진전하게 됨으로 접근하게 됨으로 그 속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하지 말고, 일곱 배 강한 힘으로 자식을 붙들고 난리치지 말고, 십자가에서 자식에 대해 죽으면서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 때문에 확인되어진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 넣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하고 외치세요. 왜 외쳐요? 자꾸 자식에 대한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부르짖어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나도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믿고 계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나도 느끼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실제로 느껴지잖아요, 초등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알고 있는 자리에서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도달하면 승진에 대한 욕구, 결혼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다 사라져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 수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걱정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범사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그런데 이것 다 떨쳐버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범사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이상하게도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늘로 채우는 적극성이 있어야 이 세상을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어코 빨려들어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끼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늘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사업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지'하고 보고 있으면 반드시 내 사업문제로 빨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선 죽어야 되요.

절대로 강단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힘으로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아멘' 해서도 안돼요.
"사업이 잘 안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사업에 대해서 죽으시고 영혼이 잘된 자, 좋은 길로 인도된 자답게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세요."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문학적인 재간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호소력 있게 전달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무미건조하게 전달하시고, 가지가지 방법으로 전달하시겠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영혼이 잘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범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하늘로 인도되어 주님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계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범사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조차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보라서 게을러서 한심해서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다 영혼, 우리의 마음이 위로 인도되는 것을 영혼이 잘된 자라고 그러는 거니까, 위로 갔는데 왜 딴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운명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족을 못 얻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아요.
돈 잘 벌어 만족하겠다,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 만족하겠다, 건강에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사항 무입니다.

우리 마음의 만족은 오직 위의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범사에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고 광풍을 만나 난파당한 것도 형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몸의 삶이 이끌려져 갈 때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선악기준을 갖고 바라보았다간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이런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인데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업하면 무조건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거다, 누가 그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사업이 망하는 게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 수 천 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선악이 죽어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바라보는 수동

성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로 깨끗하게 비워진 속을 왜 그대로 비워두고 있습니까? 비워둔 채로 놔두다 보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일곱 배 강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이게 죄악이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일곱 배 강한 죄악의 힘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영혼이 잘되는 자, 기쁘고 좋은 길로 인도되어 하늘로 간 다음에 범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직 내 마음의 만족은 무조건 세상에 대해 불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좋은 길로 치달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반복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속한 이 땅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통을 사도요한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좋은 길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이 몸이 처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요한은 말한 것이지, 가이오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 주야장창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의 내용 앞에서 그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주님,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되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케 하시고 몸이 처한 이 세상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이 형통해지는 놀라운 하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